
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	
	<b>보도</b>	<b>2018. 10. 5.(금) 석간</b>	<b>배포</b>

담당부서	핀테크지원실 감독총괄국	이근우 실장(3145-7120), 김용태 팀 장 (3145-7125) 이준호 국장(3145-8300), 장경운 부국장(3145-8001)
------	-----------------	---

**제 목 : 「레그테크 발전협의회」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**

- 금융감독원, 아시아권에서 레그테크를 선도하기 위한 시동을 걸다

◆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규제준수를 지원하는 레그테크\* 분야에 있어 국내 금융권이 범아시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광열 수석 부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「레그테크 발전협의회」\*\*를 출범

\* 규제(Regulation)와 기술(Technology)의 합성어

\*\* 구성원 : 금감원(금융감독연구센터 선임국장, 감독총괄국장, 핀테크지원실장), 유관기관(금융보안원, 코스콤), 학계(레그테크 및 IT 분야 교수), 업계(금융회사, 전자금융업자, 레그테크 / IT기술 전문기업), 법조계(변호사 등) 전문가

○ 동 협의회에서는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'18.9.10. 핀톡(FinTalk) 행사에서 천명한 MRR (Machine Readable Regulation)\*의 구체적인 도입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는 한편,

\* 금융규제(예: 전자금융감독규정)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(기계어)로 변환

○ 금융회사·핀테크기업의 레그테크 활성화를 위해 감독당국과 유관기관·학계·업계·법조계 전문가 상호간의 창의적인 논의의 장이 될 전망

◆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동 협의회를 통해 MRR사업 확대, 레그테크 전문업체 육성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레그테크 활용방안 등 다양한 레그테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천명

○ 레그테크 선진국인 영국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 혁신의 선도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

- '18.10.5.(금) 금융감독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원내 유관 부서장(내부위원)과 외부전문가(외부위원) 등이 참석하는 「레그테크 발전협의회」 제1차 회의를 개최
  - 「금융감독혁신 과제」('18.7월 발표) 중 “레그테크 활성화 지원”의 구체적 과제로 「Machine Readable Regulation\*」(MRR)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('18.9월)한 바 있으며, 이에 이어 금번 회의를 개최
    - \* 금융규제를 컴퓨터(Machine)가 인식할 수 있는(Readable) 언어로 전환하는 기술
  - 금번 회의에서는 MRR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레그테크 산업의 성장 및 금융회사의 레그테크 도입 필요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제시됨

#### 「제1차 레그테크 발전협의회」 개요

- (일시 / 장소) '18.10.5.(금) 15:30~16:30 / 금융감독원 11층 제1회의실
- (주요 참석자)
  - (금감원) 수석부원장(의장), 금융감독연구센터 선임국장, 감독총괄국장, 핀테크지원실장(간사)
  - (유관기관) 금융보안원 임원, 코스콤 임원
  - (학계) 레그테크 및 IT 분야 교수
  - (업계) 금융회사·전자금융업자·레그테크 전문기업 등의 임원
  - (법조계) 변호사 등

시 간	내 용
15:30~15:35(5분)	▪ 개회 안내 및 위원 소개
15:35~15:40(5분)	▪ 인사말씀 (유광열 수석부원장)
15:40~15:45(5분)	▪ <안내> 레그테크 발전협의회 운영방향
15:45~16:00(15분)	▪ <주제발표> “Machine Readable Regulation” 시범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방안
16:00~16:30(30분)	▪ <토론> 레그테크 관련 정책적 제언

## II 수석부원장님 말씀 요지

-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금융규제가 갈수록 복잡·다양화되는 한편, 금융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금융서비스가 지능화·고도화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,
  - 금융규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레그테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
- 지난 9월에 개최된 「핀테크 타운홀 미팅 - 핀톡(FinTalk)」에서 “레그테크 활성화”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발표된 「Machine Readable Regulation」(MRR) 시범사업을 소개하면서
  - MRR 시범사업은 향후 금융회사의 컴퓨터가 금융관련 법규를 인식하고 규제준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파일럿 테스트라는 점을 언급하며,
  -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규제준수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한편,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
- 앞으로도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규제준수를 지원하는 레그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하면서,
  - 우선, 「전자금융거래법」상 업무보고서 규정에 대해 실시하는 MRR 시범사업을 다른 금융관련법규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,
  - 다음으로, 규제준수업무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레그테크 전문업체가 출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언급하며,

- 나아가,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서에 레그테크가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
- 아울러, “레그테크는 핀테크 혁신의 파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방파제 역할\*”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,
  - \* 혁신 기술 도입으로 인한 금융회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, 동시에 금융산업과 소비자를 보호
- 레그테크가 핀테크 혁신에 내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
- 금번 회의가 규제 전문가(감독당국), 인프라 전문가(유관기관), 규제 수범자(업계), IT기술·법률 전문가(학계, 법조계)가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(場)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,
  - 레그테크 선진국인 영국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혁신의 선도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

### III 향후 계획

- 향후 「레그테크 발전협의회」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“실무단”에서 심도 있는 실무적, 전문적 의견을 논의하고
  - 이를 통해 레그테크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해낼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